

근대 기독교출판번역사 조사: 번역주체를 중심으로

최 효 은
(한동대)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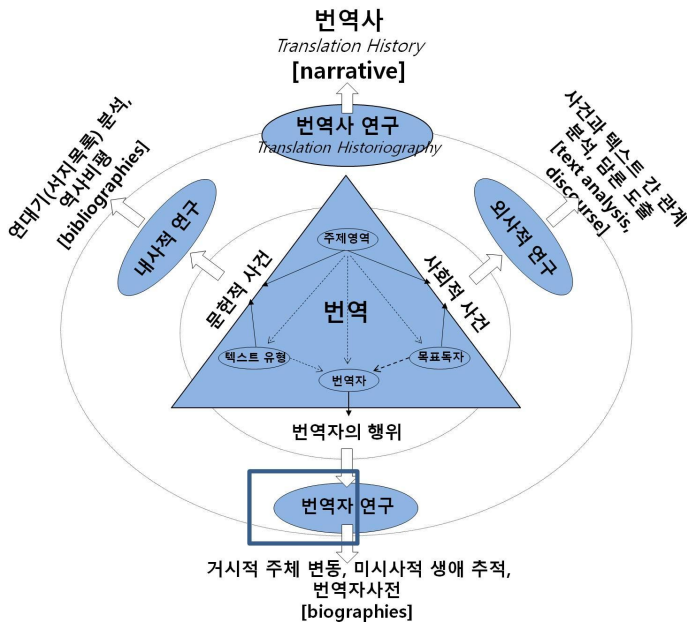
헤르만스(Hermans 2012: 244)는 번역사¹⁾ 연구가 두 단계의 과정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먼저 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번역이 어떠한지를 살피고(1단계),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당 맥락 속에서 번역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2단계). 즉, 1단계는 조사과정, 2단계는 합의 도출 내지 담론 형성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핼(Pym 1998: 5-6)은 번역사 연구방법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번역했는가 등의 질문에 총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답하는 번역고고학(translation archaeology), 진보(progress)라는 관점에서 해당 번역이 진보에 기여하거나 진보를 저해한 방식을 평가하는 역사비평(historical criticism), 그리고 원인 규명

1) 본고에서 ‘번역사’는 ‘translation history’, ‘翻譯史’를 가리킨다. ‘translator’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번역자’(翻譯者)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causation)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explana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세 가지를 헤르만스의 견해에 대입한다면, 번역고고학이 1단계에 해당하고, 역사비평과 설명은 2단계의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의 연구는 번역사 연구 가운데, 헤르만스의 견해에 따르면 1단계, 펴의 구분에 따르면 번역고고학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20세기 전반 기독교출판번역사가 어떠한지를 특히 번역 주체의 측면에서 조사하고 그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번역고고학적 연구는 복잡하고 지난한 그러나 번역사 연구에 꼭 필요한 일련의 조사과정을 요구한다(Pym 1998: 5). 본고의 경우도 본론의 상당부분이 ‘조사과정’(본고 3장)을 기술하는 데 할애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순히 연구방법을 절차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의 조사에 따른 중간결과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의 조사가 이어져야 하는 타당성과 조사전략을 설명한다. 즉, ‘조사결과’(본고 4장)와 함께 그 자체가 아직 연구된 바가 많지 않은, 기독교출판의 당시 양상에 관한 지식을 알려 준다.

그림 1 번역사 연구의 체계



또한 본고의 연구는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번역사 연구의 일부로서 구체적으로는 그림 1과 같은 체계로 수행된 필자의 학위논문인 『번역사 연구방법을 통한 ‘단권 성경주석’(1934)의 고찰』(2016)에서, 상자로 표시한 ‘번역사 연구’의 전반부에 기초한 연구이다. 그러나 본고는, 특정 역사적 번역(historical translation), 즉, 『단권 성경주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아니라 학위논문에서는 『단권 성경주석』을 역사비평하기 위한 배경맥락으로서 의미를 가지던 기독교출판번역사 맥락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즉, 본고는 학위논문과 연구의 목적과 범위가 상이하며, 원고 역시 소논문의 체재에 맞춰 재구성, 재기술되었다.

본 연구가 다루는 기간 범위와 관련하여 부연하자면,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는 ‘근대’ 시기의 기독교출판번역사를 대상으로 한다. 역사학계에서 근대라는 개념은 여전히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다. ‘근대성’(modernity)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또한 결국 주체의 문제이기도 한 그 형성과정에 대하여 자생적인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외래적인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특히 그 시작점을 잡는 데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기독교출판번역사 맥락의 경우는 그 시작점은 비교적 자명할 수 있다. 우선 ‘기독교출판물’²⁾을 기독교사상과 종교를 담은 출판물이라고 정의하고, ‘기독교출판번역물’은 그 가운데서도 번역된 출판물들로 범위를 한정할 때, 기독교출판번역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무래도 기독교의 경전이자 핵심 텍스트인 성경번역본의 출판이다. 현재 한국어로 된 최초의 성경번역본은 만주에서 작업된 로스역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각 1882년 3월과 5월에 출판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근대 기독교출판번역사의 시작점을 1882년으로부터 잡고자 한다.

그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기독교출판번역사 맥락 특정적 사건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한국사의 일반적인 시대구분을 취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시작을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의 종료 시점인 1945년으로 잡기도 하고, 혹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분단 상황을 고착시킨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으로 잡기도 한다. 그 각각이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2) 본고에서 ‘기독교출판물’은 성경과 찬송가를 제외한 일반 출판물을 가리킨다.

때문에 이때 시대구분의 관건은 1945년과 1950년 사이 5년간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기도 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해당 5년 기간의 정치적 주체가 초기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1948년)로 이행한 점에 근거하여 그 시대적 성격은 이전 기간보다는 이후 기간과 더 연속성을 띤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1945년까지를 근대, 그 이후를 현대로의 이행기 내지 현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근대 기독교출판번역사’를 다루는 본고에서도 1945년까지는 대상 기간으로 삼고자 한다.

2. 연구문제와 작업가설

서론에서 기술한 연구범위에 따라 본고의 연구문제는 “근대 기독교출판 번역사에서 번역의 주체는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이 된다. 번역주체는 여러 가지가 사회문화적 요소에 따라 그 성격이 변별되었으나 본고에서는 번역자의 ‘국적’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외래사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기는 기독교 유입 초기라는 점 때문이다. 기독교 유입 초기, 외래사상으로서의 기독교를 전파한 주체는 서양인 선교사들이었다. 이 점을 번역출판물의 생산의 측면에 대입하여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문제이다.

〈표 1〉 기독교출판번역사 유관 맥락의 시대구분

기독교신문잡지사, 윤춘병(1984: 45)		기독교출판문화사, 이만열(1987: 332-333)		
특징	연도	연도	특징	
-	-	1881-1894	전도문서와 간략한 교리서의 간행	1
1 선교사 시대	1885-1919	1895-1910	신앙의 생활화를 위한 출판물과 한국인 저술가들의 출현	2
		1911-1919	주일학교 교과책의 간행	3
		1920-1930	사회문제와 관련된 출판물	4
2 선교사와 한국인 동반 시대	1920-1930	1920-1933	사회문제와 관련된 출판물	4
3 한국인 시대	1931-1939	1934-1942	한국인의 신학서적 저술	5
4 출판암흑 시대	1940-1945	-	-	-

상기 <표 1>은 윤춘병의 『한국기독교신문·잡지백년사 1885-1945』(1984)와 이만열의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1987) 중 출판 부문의 시대구분을 정리한 것으로 본고가 대상으로 삼는 번역사 맥락과 관계가 밀접하다. 두 가지 모두에서 서양 선교사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윤춘병(1984)의 경우 시대구분의 인자(factor) 자체가 신문·잡지의 생산주체가 선교사이냐 한국인이냐이다. 이만열(1987: 332-333)은 ‘한국인 저술가들의 출현’, ‘한국인의 신학적 저술’로 2기와 5기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참여가 해당 시기를 규정하는 특징이 될만큼 외국인의 주도가 일반적이었음을 전제한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 유관 맥락의 시대구분이 가리키는 함의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근대 기독교출판번역사의 번역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연구문제에 대하여 외국인 선교사들의 비중이 상당했으리라는 작업가설(working hypothesis)을 세워 볼 수 있겠다.

3. 조사 과정

3.1. 조사의 원리

아직 기술되거나 조사된 적 없는 기독교출판번역사의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번역고고학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김정우(2005: 141)는 번역사의 기술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분야에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필요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이를 ‘번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잣대로 재조명하여 번역사적 혹은 번역학적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으로 일차적인 번역사의 열개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번역사 연구의 문제는 자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자료를 일정한 개념적 틀에 맞게 정리하여 적절한 질서를 부여하고 새롭게 의미 규정하는 이론과 사관의 문제라는 것이다.

본고의 조사는 김정우(2005)와 같은 접근방식을 기본적인 조사의 원리로 삼아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관련 분야에 이미 축적된 자료를 찾아 검증하고, 번역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재가공,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3.2. 표본 서지목록의 선정

상기 언급한 접근방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독교출판번역사의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표본조사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본고의 맥락을 구성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관련 지식, 특히 양적분석을 병행하고 있는 연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받아들일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당시에 대한 기초 지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접근 방식에 따라 표본자료로 삼은 것이 김봉희의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 1882-1945』(1987)이다. 이 연구는 “19세기 말엽부터 1945년까지 간행된 한국 기독교문서의 간행소를 고구하고 그 목록을 집대성”(1987: 11)할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도서관학과의 연구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독교문서’라 함은 “기독교문헌, 기독교서와 동의어로서 기독교의 또는 기독교에 관한 일반서적, 소책자, 정도지 등을 총칭한다”고 하였다. 텍스트유형 면에서나 시기적으로나 본고의 조사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적절하다고 하겠다.

또한 김봉희는 서지정보를 수집할 때, 연세대 도서관, 송전대(현 한남대) 기독교 박물관, 기독교문서, 한국교회사연구소(천주교), 시조사(안식교) 등의 여러 기관을 찾아가 소장 자료를 확인하는 직접 조사와, *The Korea Repository*, *The Korea Mission Field* 등, 초기 선교사들의 연구 논문집이나 기독교신문, 잡지, 단행본 등에 나오는 문서광고를 검토하는 간접 조사 방식을 모두 활용하였다(1987: 13-14).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장서 목록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전하는 소장 자료 뿐 아니라 과거의 시대상에 접근하는 데 오히려 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당시의 문서광고를 참고하여 목록을 보충하였다는 데서 활용 가치가 높은 목록이라 하겠다.

한편 비교 가능하거나 참고할 만한 다른 연구로는 앞서 언급한 윤춘병(1984)과 이만열(1987), 월튼의 *Chronological and Background Chart of Church History* (Walton 1986)을 번역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추가하여 편집한 김영무, 김일우의 『차트로 본 교회사』(1996), 그리고 이장식의 『대한기독교서회백년사』(1984) 등이 있다. 이들 연구 가운데 이장식(1984)의 연구는 다루는 텍스트유형

면에서나 방대한 양의 도서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데서 관심을 가져볼 만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고의 조사를 위한 표본자료로 삼을 수 없었다.

첫째, 단일 출판사의 목록이라는 점이다. 김봉희(1987) 목록의 경우 등장하는 출판사의 수가 명칭을 기준으로 90여 개에 달한다. 이를 동일 출판사의 사명 변경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재분류해도 25개 정도의 출판사들이 남는다. 이 정도의 수치는 사실상 당시의 기독교출판사를 무작위 추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정도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둘째, 이장식의 목록은 서명을 포함하는 도서목록이기는 하지만, 사업보고와 기록을 목적으로 정리된 해당 출판사의 *The Annual Report* (연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목록 내의 건(件) 구분이 사실상 ‘서지’라기 보다는 ‘사업시행’을 기준으로 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장식의 목록은 서지정보에서는 일반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장정(종이 장정, 형질 장정, 비제본, 경표지 장정 등, 이장식 1984: 321) 상의 차이를 별개의 건으로 정리하고 있다. 셋째, 이장식의 목록은 도서의 발행연도를 특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점 역시 본 목록이 서지목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사업내역목록이라고 봐야 하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사건이 언제 있었나를 아는 것이 역사연구의 기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특징은 본고가 활용할 자료로서는 한계가 된다.³⁾

3.3. 표본 서지목록의 검증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김봉희(1987)의 목록은 텍스트유형과 시기, 서지정보의 다양한 출처와 수집 방식,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 체계의 재활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본고의 연구목적에 비추어,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앞서서, 아무

3) 이장식(1984) 연구에 대하여 본고에서 지적한 세 가지 한계는 필자와 같이 제 3의 연구자가 나름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그 목록을 활용하고자 할 때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대한기독교서회라는 단일 출판사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이장식(1984) 연구 자체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리 미지의 상태인 과거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하더라도, 해당 목록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현재의 출판 양상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먼저 대한출판문화협회⁴⁾에서 제공하는 2014년 출판통계를 바탕으로 종교 분야와 문학 분야의 비중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종교 분야의 상대적 크기는 문학에 대하여 약 29% 정도였다. 근대 시기의 양상을 검토하는 자료로서는, 종교 분야에 대해서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록인 김봉희(1987)의 목록을, 문학 분야에 대해서는 김병철의 『세계문학번역서지목록총람』(2002)을 비교했다. 그 결과 김봉희 목록에 포함된 서지정보의 수는 932건, 김병철 목록은 3,278건으로, 전자가 후자의 약 28% 정도였다. 즉, 근대시기의 자료들이 보여주는 양상이 현재와 거의 유사한 것이다. 또한 만일 현재의 양상을 자료의 적정성을 판별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김봉희와 김병철의 서지목록은 현재의 양상을 놀랄만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적절한 자료라고까지 할 수도 있겠다.⁵⁾

이상의 검증 과정을 통해 김봉희(1987)의 목록에 포함된 서지정보의 수가 당시 기독교출판 부문의 시대상을 검토하는데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 표본에 다른 출처의 서지정보를 대거 혼합하게 되면 오히려 사실상 무작위 추출된 자료가 가지는 기술적(descriptive) 가치를 손상할 수 있다고 보고, 본고가 분석하는 서지정보는 김봉희 목록의 932건에 이만열(1987) 연구에서 찾은, 김봉희 목록에 없는 18건을 추가하여, 총 950건으로 확정했다.

3.4. 표본 서지목록의 분석

20세기 전반 기독교출판번역사의 연대적 맥락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4) <http://www.kpa21.or.kr/>

5) 기독교라는 주제 분야가 근대 시기의 출판을 선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봉희(1987) 목록의 크기는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은 서지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표본자료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적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다른 근거 자료가 부재하고, 다만 현재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정도를 가늠해보는 것이 최선인 상황에서 상기 조사 결과는 김봉희 목록을 활용하는 것을 최소한 저해하는 결과는 아니다.

본고는 김봉희(1987)의 서지목록을 그 표본자료로 선정해 검증하였고, 분석의 대상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본고의 연구문제에 따라 기독교출판번역사의 번역의 주체가 어떠한지를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이 분석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따랐다. 첫째, 소책자의 포함 여부 결정, 둘째, 번역물의 판별 기준 설정, 셋째, 외국인 저작자의 이명 확인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점들은 근대시기 기독교출판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는 바 여기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3.4.1 소책자의 포함 여부

본고의 조사에서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서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책자(pamphlet), 즉, 48페이지 이하 5페이지 이상인 인쇄물(강희일 2007: 36 참고)도 기독교출판번역사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포함시켰다.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서지정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책자라 하더라도 번역과정을 통해 출판된 경우들이 많아 분량 상의 이유로 이들을 제외할 경우 번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외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고의 맥락을 기독교서적번역사 등으로 하지 않고 기독교출판번역사라고 일컫는 것도 이 같은 특징을 고려한 조치였다.

1. 여호수아와 사사기대지/W. B. Hent 著. [京城]; 대한예수교 장로회, 1909(능회2). 16p; 19cm.
2. 순도기록=殉道記錄/밀 목사 譯述. 京城 鍾路; 耶蘇教書會, 京城 鍾路 耶蘇教書會 英國人 班禹巨, 明治45[1912]年 1月 28日 發行 (京城 西小門街; 法韓會社印刷部, 京城 西小門通 法國人 트리물리, 明治 45[1912]年 1月 25日 印刷). 39p; 19cm.
(순서대로 김봉희 1987: 23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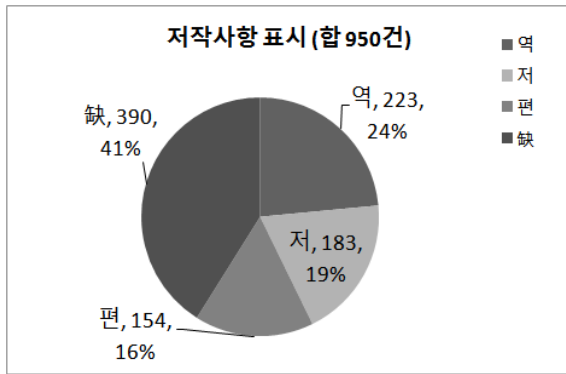
3.4.2 번역물 판별 기준

현대의 출판물 목록이라면 거기에서 번역물을 분류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역’, ‘옮김’ 등과 같은 저작사항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더

육이 대부분의 번역연구는 애초에 이미 번역물로 밝혀진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분류작업은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자료를 탐사(detect)부터 해야 하는 역사연구에서는 이 같은 당연한 선결절차조차도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했다.

먼저 현대의 일반적인 번역물 판별 기준에 따라 본고의 서지목록을 저작사항 표시를 기준으로 번역물을 분류하면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번역서로 분류되는 서지정보가 24%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저작사항 표시를 결(缺)한 경우로 41%나 된다. 저작사항 표시가 없어서 해당 출판물이 저술인지 번역물인지 등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40%를 상회한다는 것은 저작사항 표시 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해 재분류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번역물의 비중이 2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재분류의 필요성을 가중시킨다. 왜냐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보아도 종교 분야 출판물 가운데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5.9%, 2011년 37.6%, 2012년 32.9% 등⁶⁾으로 기독교 유입 초창기인 19세기 말엽, 20세기 전반 기독교 출판물 가운데 번역서의 비중이 25%를 못 미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림 2 확정 서지목록에서 저작사항 표시에 따른 저작물의 유형 구분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저작사항을 ‘번역’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를 번역서로 분류하는 일반적인 기준 외에, 저작자(들)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번역’

6) 대한출판문화협회(<http://www.kpa21.or.kr>)

외의 다른 표시가 있어도, 즉, ‘저술’이나 ‘편집’ 등의 표시가 있어도 해당 출판물을 번역물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국어로 저술을 하였거나, 한국어로 간행되는 텍스트를 편집하였다는 것은 결국 해당 텍스트가 이(異)언어적 과정에 의해 생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1813/2004: 57)는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사고를 형성하는 것은 오직 모국어를 통해서 뿐이라고 한 바 있다. 즉, 외국인 번역자들이 한국어 텍스트 생산에 참여한다면 ‘머릿속 번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윤대석(2008: 312-313, 315)은 1930, 40년대 한국문학을 논하며 당시 한국문학의 작가들은 일본어로 교육을 받았고, 일본문학을 정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창작조차도 일종의 머릿속 번역이었다는 점에서, 번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번역물을 판별해내는 가장 용이한 방법인 저작사항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외에 저작자 중 외국인 국적자의 포함 여부를 또 다른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비교적 간명해 보이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외국인의 이(異)명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3.4.3 외국인의 이명 확인

근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① 영문명(W. M. Baird), ② 영문음역명(베어드), ③ 한자명(裵緯良), ④ 한자음역명(배위량)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이름을 표기하였다. 본 조사의 서지목록에도 상기 네 가지 유형의 표기방식이 모두 등장했다. 또 외국식 세례명을 사용하는 천주교의 명명 방식에서는, 해당 세례명이 외국인의 것인지 한국인의 것인지를 구분해야 했다. 아래는 저작자가 외국인인 몇 가지 사례들이다.

1. 턴로지귀=天路至歸/A. Judson 원저; W. M. Baird 역. [京城 貞洞 培材學堂內; 三文出版社], 1894 明治町; 15p
2. 신도게요셔/裵緯良 編. [京城 鍾路]; 朝鮮耶蘇教書會, 1925. 98p.
3. 이기는 생명/배위량 역술. 京城 鍾路; 朝鮮耶蘇教書會, 京城 鍾路 英國人 班禹巨, 大正8[1919]年 12月 發行(京城府 寬訓洞 30; 朝鮮福音印刷所, 京城府 寬訓洞 30 金重煥, 大正8[1919]年 12月 印

刷). 21p; 19cm.

4. 미사규식/白테오도로 編. 吉林省 延吉현 局子 天主堂, 吉林省 延吉현 局子 天主堂 白테오도로, 昭和8[1933]年 11月 10日 發行(朝鮮 咸鏡南道 德源: 德源神學校 印刷府, 吉林省 延吉현 局子 天主堂 白테오도로, 昭和8[1933]年 11月 7日 印刷). 119p.; 17cm.
5. 天主교회 약현지방사/元亨根 編, 약현천주교청년회, 1933. 29p.; 22cm.

(순서대로 김봉희 1987: 264, 275, 274, 156, 156)

번역물 분류를 위해 해당 저작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 본 조사의 입장에서는 ③과 ④의 경우를 외국인의 이름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서지목록에 등장하는 이름들 중 ①,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례명을 포함한 모든 경우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명 확인을 위해서는 인물사전 검색, 고신문 검색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사전류로는 『基督教 大百科事典』(1-16권), 『한국감리교인물사전』⁷⁾이라는 인터넷사전과 동명의 종이 사전(2002년 발행)이 특히 유용했다. 이 외에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한국학중앙연구소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⁸⁾에서도 당시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전류에서 용이하게 검색되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고신문을 찾아서 확인했다. 고신문에서는 인물을 대부분 한자명이나 한자음역명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미국인 000씨” 등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상 근대시기 기독교출판 분야의 번역의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서지목록을 확정된 이후,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을 언급하였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분석의 결과를 기술하도록 한다.⁹⁾

7) <http://kmc.or.kr/dic-search>

8)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9) 서지목록 분석과정에서 처리해야 했던 난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효은(2016) pp. 185-195 참고.

4. 조사 결과

4.1. 근대시기 기독교출판에서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중

본 조사에서 확정된 서지목록에서 번역물만을 분류해내기 위해 일련의 분석 과정을 거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번역물을 생산해낸 주체로서의 번역자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역물의 비중이 71%로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비번역물, 다시 말해, 본 조사에서 설정한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들)만이 저작에 참여한 창작물 내지 편자가 19%, 그 외 저작사항 표시나 저작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번역물인지 비번역물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10%였다. 이 같은 결과는 근대시기 출판물은 번역물이 대부분이었다는 견해에 부합하는 결과라 하겠다(이중한 외 2001: 35, 윤춘병 1984: 49, 김봉희 1987: 28-29 참고). 물론 한국인(들)만의 창작물 내지 편자, 그리고 추정 불가능한 출판물들 중에도 실은 번역과정을 통해 생산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 즉, 저작사항 및 저작자 표시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확정 서지목록에서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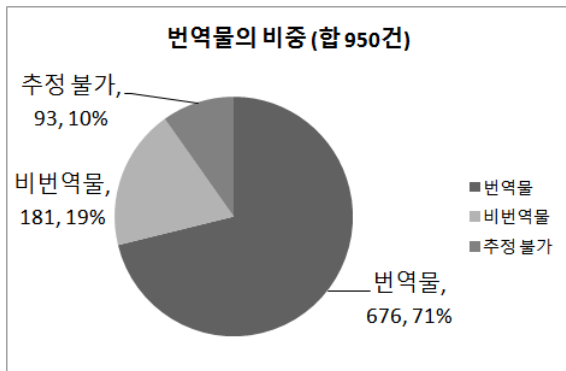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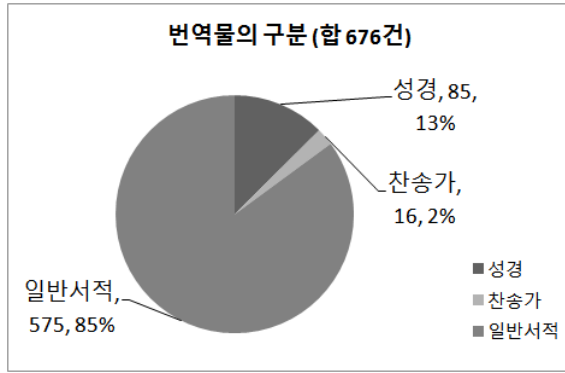


그림 4 확정 서지목록에서 분류된 번역물들의 텍스트유형 구분



그런데 앞서 각주3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조사에서 기독교출판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경과 찬송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출판물이다. 이 같은 조치는 서론에서 밝혔듯 본 조사가 본래 『단권 성경주석서』(1934)라고 하는 성경주석번역서의 역사적 의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일부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즉, 본 조사가 필요로 하는 번역사 맥락은 성경주석서라는 텍스트유형이 포함되는 맥락이다. 나이다(Nida 1994: 195)는 종교텍스트 유형을 (1) 신앙인들의 신앙의 양상과 그 실천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텍스트와 (2) 신앙을 형성하는 데 근간을 이루는 텍스트,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성경과 같은 경전이 두 번째 유형이고, 성경주석서나 신앙 고백서, 신학서, 목회 지침서 등 나머지 모두가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즉, 본 조사에 필요한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비록 경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성경과 함께 예배 의식을 위해 성경에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또한 번역사 연구에서 성경과 함께 그간 별도로 다뤄진 바 있기도 한 찬송가 텍스트도 제외하였다(나진규 2001; 문옥배 2001; 민경배 1997 참고).¹⁰⁾ 그 결과가 그림 4로, 이어지는 ‘번역사 변동 추이’를 살피기 위한 범주를 성경과 찬송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서적 575건의 서지정보로 확정하였다.

10) 기독교텍스트 유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효은(2016) pp. 52-55 참고.

4.2. 번역자의 변동 추이

본 조사에서 확정된 기독교출판물에 관한 서지목록에서 성경과 찬송가를 제외한 나머지 텍스트유형에 대한 번역물을 분류해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번역물을 생산해낸 주체로서의 번역자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기독교출판번역물의 번역자 국적 변동 추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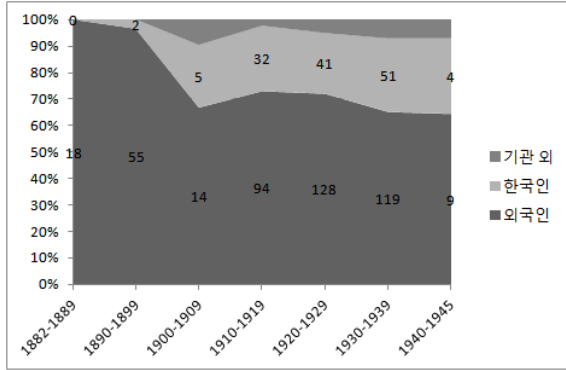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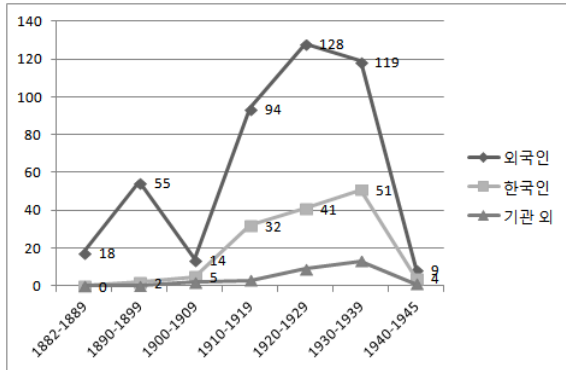


그림 6 기독교출판번역물의 번역자 국적 변동 추이: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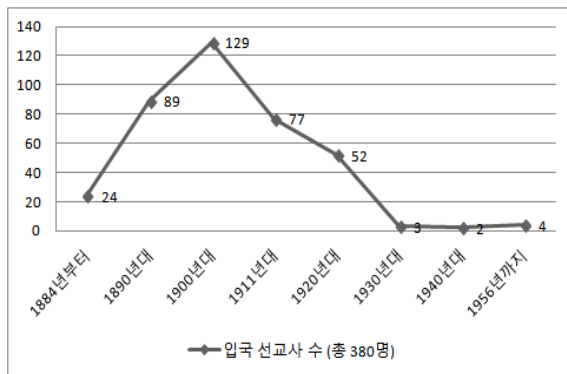


기독교출판번역물(성경과 찬송가를 제외한 일반출판물)의 번역자를 외국인 국적의 번역자와 한국인 번역자, 그리고 기관 및 불명의 경우로 나누어 그 기간 내 총계와 평균 살펴보면 순서대로, 437(73%), 135(22%), 28(5%)이다. 외국인

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것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1900년대 이전 두 기간 동안에는 번역자 거의 전원이 외국인이고,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7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자 변동 추이를 수치로 확인하면 그림 6과 같다. 번역물의 생산이 (1) 1900년대와 (2) 1940~1945년 기간에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기간 (1)은 한일합방(1910)이 있기 전으로 러일전쟁(1904)이 발발하고 을사조약(1905)이 체결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크게 불안정한 시기였다. 기간 (2) 역시 일본의 패망 직전 태평양전쟁(1941)이 발발하는 등 사회불안이 극으로 치달았던 시기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기독교출판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본이 미국 본토 공습을 감행하는 등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내한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추방(1941)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번역을 포함한 기독교출판의 핵심 주체였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급격히 축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내한선교사의 수에 관계된 자료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근대시기 내한선교사의 입국 추이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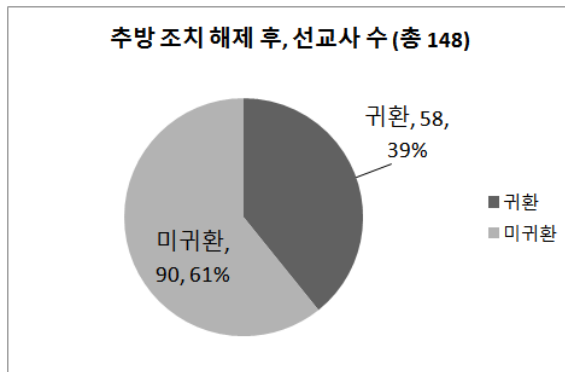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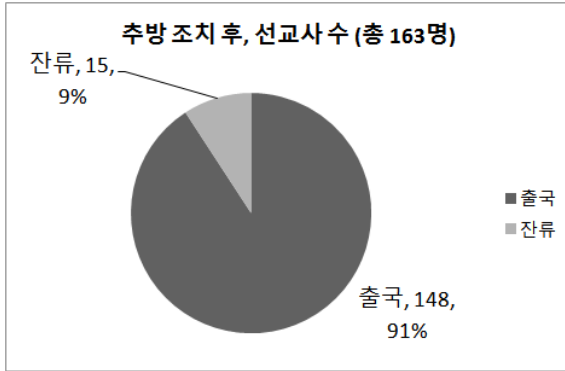


선교사들의 입국 규모는 1900년대에 정점을 찍는 양상이다. 1920년대까지

11) UCLA 한국학 연구소의 자료(Online Archive: Korean Christianity: Selected Protestant Missionaries and Visitors, <http://koreanchristianity.humnet.ucla.edu/biographies/missionaries>)를 토대로 구성

는 비교적 활발하게 선교사들이 입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부터 입국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내한선교사 추방이 있었던 1940년대에도 입국한 선교사가 있는데 이 둘은, 상기 UCLA 자료(*)에 따르면, 피치(George A. Fitch, 서울 주재)와 모펫(Howard Fergus Moffett, 대구 주재)으로 각각 1947년, 1948년에 입국한 것으로 일본 패망 이후이다.

(위) 그림 8 추방조치로 출국한 선교사의 비중
 (아래) 그림 9 추방조치 해제 후 귀환한 선교사의 비중



같은 자료에서 입국과 출국 연도를 토대로, 추방조치가 이루어진 1941년 직 전까지 한국에 주재하였던 선교사 163명 가운데 조치 이후 출국한 선교사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8명으로 91%에 달했다. 또한 이 148명 가운데

일본 패망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가 채 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그림 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930년대 이후에는 선교사들의 신규 입국이 지극히 둔화되었다. 즉, 추방조치가 이루어진 시점 이전의 수준으로 내한선교사들의 수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다.

4.3. 소결

이상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1882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근대시기 동안 기독교출판에서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했다(그림 3 참고). 이것은 그간 근대 기독교출판물의 대부분이 번역이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증명하는 결과였다.

그리고 이 번역물들 가운데, 성경과 찬송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출판물을 대상으로 번역의 주체를 확인하였을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간 평균 70% 정도였다. 이 비중은 기간 내내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5 참고). 이 같은 결과도 그간 근대 기독교출판물의 생산에서 선교사들의 역할과 비중이 지대했다는 견해를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별 추이를 통해 뒷받침한다.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40년대로, 어떤 내적 동인, 예를 들어, 외국인 번역자들보다 한국인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선택되기 시작했다는 등의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 요인에 의한 급격한 변동이었다. 그 외적 요인이라 미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에 따른 내한선교사 추방이라는 정치적 조치로서, 이 조치 이후 외국인 선교사들의 수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이 점은 신규입국의 추이는 물론 재입국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고의 조사는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기독교출판번역사의 주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같은 연구는 특정 시기와 환경 내에서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헤르

만스(2012)가 개념화한 번역사 연구의 1단계 조사에 해당하고, 방법적으로는 뎀(1998)이 구분한 번역사 연구 종류 중 하나인 번역고고학에 해당한다.

먼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서 신문·잡지 및 출판물 일반 등 유관 맥락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해당 맥락에서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독교출판번역물에 관한 본고의 작업가설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자료를 비교적 무작위추출하여 수집하고 있는 서지목록을 표본자료로 선정·보완하여 양적 분석에 주력함으로써, 외국인 번역자의 비중이 기간 내 평균 73%를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본고의 작업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번역 주체를 검토하기 위한 실제적인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근대시기 기독교출판물에서 번역물의 비중을 도출하였다. 그간 근대 기독교출판물 대부분이 번역물이었다는 견해는 적지 않았으나 그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양적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그 비중을 71%로 추산하였다. 이것은 번역물을 판별하는 기준을 저작사항 표시와 저작자의 국적 모두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명시하고, 그 같은 기준에 따라 번역물들을 실제로 분류한 결과이다.

이상의 일련의 과정은 번역을 중심으로 역사를 검토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번역학적 사관(史觀)을 토대로 본고의 목적에 따라 나름의 개념적 틀을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번역사 연구는 번역학 연구의 여타 분야에 비해 연구 실체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본고는 이 같은 번역사 연구 분야에 구체적인 한 사례를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과적 차원에서는 서지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과정상으로는 근대시기 출판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제들을 기술하여 관련 후속 연구들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희일 (2007) 『한국출판의 이해』, 서울: 생각의나무.
 김병철 (2002) 『세계문학번역서지목록총람: 1895-1987』, 서울: 국학자료원.

- 김봉희 (1987) 『한국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 1882-194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영무, 김일우 (편역) (1996) 『차트로 본 교회사』(*Chronological and Background Chart of Church History*, Walton, R. C. 1986, Grand Rapids, MI.: Zondervan). 서울: 아가페문화사.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사 논의의 전제」, 『우리말연구』 16: 139-161.
- _____ (2008)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번역학연구』 9(1): 29-69.
- 나진규 (2001) 『한국인 찬송가의 역사』, 서울: 세종출판사.
- 문옥배 (2001) 『한국 교회음악 수용사』, 서울: 예술.
- 민경배 (1997) 『韓國教會 讚頌歌史: 한국민족교회 찬송가의 편집사와 해석』,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유명우 (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 『번역학연구』 3(1): 9-38.
- 윤대석 (2007) 「194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번역」, 『민족문학사연구』 33: 312-336.
- 윤춘병 (1984) 『한국기독교신문-잡지백년사 1885-1945』,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이만열 (1987)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이영훈 (2013)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 『번역학연구』 14(2): 187-222.
- 이장식 (1984) 『대한기독교서회 백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중환, 이두영, 양문길, 양평 (2001) 『우리 출판 100년』, 서울: 현암사.
- 최효은 (2016) 『번역사 연구방법을 통한 ‘단권 성경주석’(1934)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ermans, Theo (2012) ‘Response’, *Translation Studies* 5(2): 242-245.
- Nida, Eugene A. (1994) ‘The Sociolinguistics of Translating Canonical Religious Texts,’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 daction*, 7(1): 191-217.
- Pym, Antony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Schleiermacher, Friedrich (1813/2004)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translating by Susan Bernofsky) in Venuti Lawrence (ed) *Translation Studies Reader*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43-63.

[Abstract]

**Translation History of Christian Publications in the Modern Time Korea:
Focusing on the Main Agent of the History**

Choi, Hyo-Eun
(Handong University)

This study exams who was the main agent of the translation history of Christian publications in the modern time Korea was. Hermans (2012: 244) has conceptualized translation historiography as the two-step process: first, forming an idea of what translation was like in a given environment, and second, assessing what role it played. Pym (1998: 5-6) has categorized methods of translation historiography into three parts: translation archaeology, historical criticism, and explanation. This study, procedurally, falls into the first part of Hermans' theorization, and methodologically, translation archaeology by Pym's classification, which he described as "complex detective work, great self-sacrifice and very real service to other areas of translation history" (*ibid.*: 5). As Pym rightly pointed, this archaeological study too demanded a complex investigations on fact-finding and analyzing. Through a series of research, the author found that the 73% of the translators for Christian publications in the period of 1882 to 1945 in Korea was a person with foreign nationality.

▶ Key Words: translation of Christian publications, translation history

최효은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sam.ch3@outlook.kr

관심분야: 기독교텍스트의 번역, 번역의 역사, 근대시기의 번역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5일